

Benzene, 일본 트러블 찾아 타격!

FOB Korea 400-410달러로 25달러 상승 ... Nippon Oil은 화재 사고

Benzene 가격은 6월13일 FOB Korea 톤당 400-410달러로 25달러 상승했다.

일본의 벤젠 생산기업들이 플랜트 정기보수에 따라 7월 공급물량이 줄어들어든 상태에서 벤젠 플랜트 트러블로 인한 공급감소가 겹쳐 7주 연속 상승해 5월 초에 비해 130달러 급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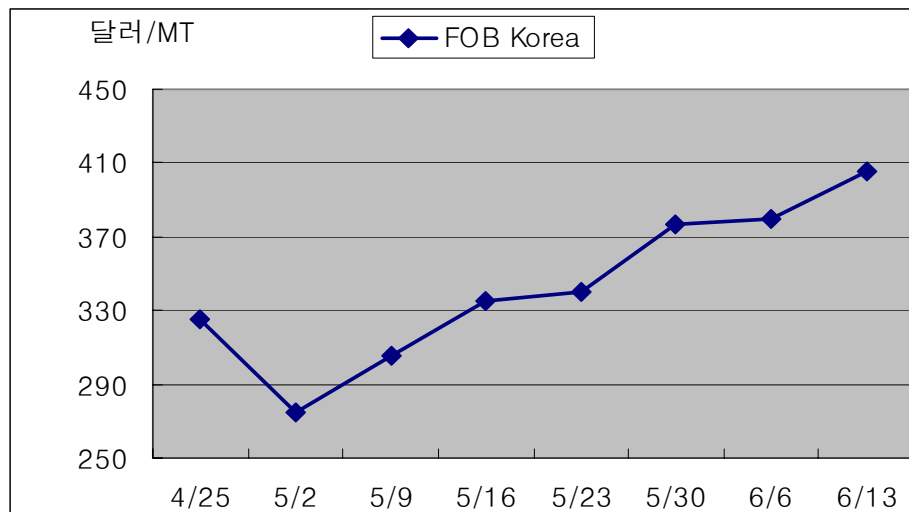
일본의 Nippon Oil은 6월7일 Marifu 소재 석유정제 12만7000b/d 플랜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벤젠 7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6월9일에는 Muroran 소재 6만톤 플랜트를 5주 일정으로 정기보수에 들어가 내수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.

또 Mitsui Chemicals은 7월 초순에 45일 일정으로 Chiba 소재 벤젠 16만톤 플랜트의 정기보수에 들어가고, Taiyo Oil도 Kikuma 소재 Hydro-Dealkylation 30만톤 플랜트를 7월21부터 3주간 정기보수할 예정이다.

따라서 일본에서는 벤젠이 CFR 톤당 430-435달러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.

아시아 벤젠 생산기업들은 7월 거래물량을 FOB Korea 톤당 430달러에 오피하는 반면 무역상들은 중국산을 41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나서 신경전을 벌인 끝에 385-400달러 대로 하락했다.

Benzene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벤젠 Spot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6월에는 FOB US Gulf 갤런당 132-133센트, 7월에는 130-133센트를 기록해 10달러 상승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18>